



Hello. My name is Sr. Marie Margaret Wolf. My entrance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September 8, 1954 was a joyous occasion. The spirit of Elisabeth Ann Seton and our community have been my inspiration over the past 66 years.

My education was at Resurrection Elementary School and then on to Elizabeth Seton High School. Both schools,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were located in the Brookline area of Pittsburgh where I grew up.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was part of my father's (Joseph) favorite pastime. My mother (Margaret) was a talented pianist. My younger sister (Mary) played the piano quite well. The violin was my enjoyment. Sr. Corrine Omler S.C. was my violin teacher. In the eighth grade, I had the honor of playing in the Diocesan School Orchestra. It was such a privilege and a great experience. My



parents always encouraged my sister and me. Church and school were very important in our family. We were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with our school and parish. All my life I have enjoyed concerts, musicals, theater, and art museums. I hold happy memories of my family and will always be grateful to God for this blessing.

Throughout my entire religious life, I have bee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 taught in the dioceses of Altoona-Johnston, Greensburg and Phoenix. I found all of these experiences enriching and delightful. I was principal in three different schools in the Diocese of Pittsburgh. Each school brought me the joy of educating

children in partnership with teachers, parents and parishioners. The gospel message has always been the primary focus of my ministry.

When the community sent me to St. James School located in Wilkinsburg, a borough of Pittsburgh, I faced a new challenge. It is an inner city school, very poor, and dominated by the African American culture. As principal, I recognized the value of working with the faculty to accomplish our educational goals for these children. Together we learned so much from their



culture by listening to their concerns and trying to meet their needs. We wanted the children to succeed in spite of their many challenges.

I received another opportunity at Sacred Heart School in the Shadyside area of Pittsburgh. There I taught English to students who came from many countries. Once again, I saw the rich heritage of many cultures. Meeting their families gave me additional perspective on the value and beauty of diversity.



As I reflect on my ministry of education I know it has been a treasure. I also know that my religious vocation has blessed me with many opportunities to honor our name, Sisters of Charity.



안녕하세요. 마리 마가렛 울프 Marie Margaret Wolf 수녀입니다. 저는 1954년 9월 8일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지요. 엘리사벳 앤 씨튼과 우리 수녀회의 정신은 지난 66년 동안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 초등학교 Resurrection Elementary School와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 다녔어요. 두 학교 모두 제가 자란 피츠버그의 브루클라인 Brookline 지역에 있었고 우리 씨튼 수녀님들이 가르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조셉 Joseph)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클래식 음악 감상이었고 어머니(마가렛 Margaret)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제 여동생 메리 Mary도 피아노를 아주 잘 쳤고 저는 바이올린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수녀회의 코린 옴러 Corrine Omler 수녀님이 저의 바이올린 선생님이셨어요. 8학년 때는 교구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정말 특별하고 멋진 경험을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여동생과 저에게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교회와 학교 생활이 참 중요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와 본당에서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참여했어요. 또, 저는 평생 음악회와 뮤지컬, 연극, 미술관에 즐겨 다녔어요. 가족과의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며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이 축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도생활 내내 저는 교육 사도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알투나-존스타운, 그린스버그, 피닉스 교구에서 가르쳤고 그곳의 모든 경험이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교구의 세 군데 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본당 교우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맛보았지요. 사도직에서는 항상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의 자치구인 윌킨스버그 Wilkinsburg에 있는 성 야고보 학교 St. James School로 파견을 받았을 때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성 야고보 학교는 흑인 문화가 중심인 빈민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교장으로서 이곳 아이들을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아이들이 지닌 문화에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해 나가기를 바랐지요.



또, 피츠버그의 셰디사이드 Shadyside 지역에 있는 성심학교 Sacred Heart School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다양한 문화의 풍요로운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의 가족을 만나면서 다양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지요.



돌아보니 제가 해 온 교육 사도직은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또한, 수도성소를 통해 사랑의 수녀라는 우리의 이름을 영예롭게 할 많은 기회를 갖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